

행복도시 세종!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6

통권 제10호

세종의회 선거

시민과 함께하는
Sejong City Council





희망찬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 화평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예로부터 충절의 기상이 살아있는 충청의 중심 터전 위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종시 출범과 함께 3년여에 걸쳐 36개 중앙 행정기관과 1만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착하고, 명실상부한 행정 도시를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명품도시에 부응하여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따라 닦을 내린 제2대 세종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또한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소모적인 이념 갈등과 더불어 청년 취업 문제, 계층 간의 소득 배분의 불균형 문제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우리 세종지역적으로 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올해 세종시의회는 21만 시민과 더불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 조치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농간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종시가 있기까지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세종시를 굳건히 지켜냈듯이 세종시의회 전 의원들은 초심불망(初心不忘)의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신(丙申)년 새아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 상 전** 배상





행복도시 세종!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암사

세종시의회 소식지 2016 통권 제10호

CONTENTS

- 02** 임상전 의장 신년 인터뷰
- 11** 세종의정 소식
- 20** 시정 질문 · 교육행정 질문
- 26** 5분 자유발언
- 29** 주요 안건처리 현황
- 35**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 43**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 46** 세종시 가볼 만한 곳
- 48**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임상전 의장 신년 인터뷰

Q1

새해를 맞이해

세종시민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A1** ◦ 존경하는 21만 세종시민 여러분, 찬란한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먼저, 지난 한해 우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새롭게 열리는 올 한 해에도 원송이 해인 만큼 원송이처럼 지혜를 시민 모두 한데 모아 나가야겠고 시민 여러분의 세종시 의정에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난 한해 해묵은 감정들은 다 털어 버리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Q2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2

- 얼마 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향후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2014년 말까지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정부 세종청사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전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이전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것은 결국 정부가 제정한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행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지난해 12월 4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이전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 세종시의회와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를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식하고 올해까지 이른바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 밖에도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그리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등 대중교통 관련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아트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전통시장별 특성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안으로는 광역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집행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세종시 정상건설의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임상전 의장 신년인터뷰

INTERVIEW

Q3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당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세종시의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A3**
- 먼저 제2대 의회 개원사에서 약속드린 사항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 세종시는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건설지역과 급격한 인구 유입, 정부기관의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 그리고 신도심과 읍면간 불균형 해소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 명품도시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제2대 세종시의회는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올해에는 시민의 곁에 좀 더 다가서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SNS(페이스북)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편,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고견을 듣고 있으며 좋은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 또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 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에 걸맞은 운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의원과 사무처 직원 전체가 함께하는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치 입법 강사초빙, 선진 로컬푸드와 신형정수도 탐방을 위한 국외연수 등을 통해 의원 상호 간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광역 의원으로서의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 후 의정연수 현황

- 2014년 제1차 의원 의정연수 (2014.7.16.~7.18.(2박3일) / 경주 현대호텔 / 25명)
- 2014년 제2차 의원 의정연수 (2014.12.17.(수) / 덕산 리솜스파캐슬 / 43명)
- 2015년 상반기 의원 의정연수 (2015.3.25.~3.27.(2박3일) / 거제 대명리조트 / 28명)
- 2015년 하반기 의원 의정연수 (2015.9.16.~9.18.(2박3일) / 목포 신안비치호텔 / 26명)



임상전 의장 신년인터뷰

INTERVIEW

-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 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광역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자치법(제38조 1항)은 지방의회의 청렴과 도덕성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윤리심사와 징계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이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윤리강령의 제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실천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는 비위사실이나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4

Q4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강화 또는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지난해 우리 세종시는 우리 의원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의원 행동 강령을 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의원들이 회이나 연찬회를 통해 청렴교육을 받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동 강령을 준수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시민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더욱 청풍양수(淸風兩袖)의 마음으로 더욱 행동 강령을 거울삼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A5

Q5

지난해 집행부인 세종시와 달리 세종시의회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부문 2위를 한 것은 대단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6

지방의회에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올해 어떻게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요?

A6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올해로 25년째를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입니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부재가 아닌가 합니다.
- 현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데에 드는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등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그 방대한 분량에 한마디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한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여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 내고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Q7

세종시 교육청의 고교 평준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시의회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불거질 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고교 평준화에 따른 혼란 발생 시 대응방안)

A7 ◦ 지난 11월 26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한 고교 평준화 조례는 세종교육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명품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상임위원회부터 조례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했던 것 같습니다.

◦ 고교 평준화 문제는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도 직결된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듣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기되는 부작용 등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안의 통과로 이제는 2017년 시행을 위해 교육계와 의회가 힘을 합쳐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원거리 배정에 따른 통학 문제와
 - 비선호 학교 및 교육격차 해소 문제,
 - 세종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평준화 포함 여부,
 - 그리고 학력 하향 및 그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가능성에 따른 진학지도의 어려움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현재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교 평준화에 있어 합리적인 학교 군 설정과 학생 배정, 그리고 상향 평준화로 가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Q8

세종시의회 신청사 건립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나설 생각이신지요?

A8

- 지난해 우리 세종시는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맞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가 함께 하지 못한 점입니다.
- 의회 청사 신축은 당초 의회동 신축에 따른 국비예산 90억 원으로 지상 4개층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기초 시의회 수준의 청사면적으로 향후 의원 수 확대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상 2개 층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준공을 예상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 의회동 건립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의회 이전 지연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의회 주관 행사와 간담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청으로 이동 개최하는 등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당 초			변 경			비 고
연면적	예산액 (억 원)	공사 기간	연면적	예산액 (억 원)	공사 기간	연면적 증 1200㎡ 예산증 51억원(시비) 공사기간 증 8개월
3,575㎡	90	~15.12.	4,775㎡	141	~16.8.	



임상전 의장 신년인터뷰

INTERVIEW

Q9

도시 외형이 성장할수록
신도시와 구도심 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 A9**
- 현재 우리 세종시는 지역 내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세종시는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조치원에 있던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지난해 보람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부권인 건설지역과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 읍면지역의 개발격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해 저희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우선 시청과 교육청 이전으로 인한 북부권 공동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청사 부지에 2017년까지 약 300여명이 상주하는 SB 플라자를 건립하는 등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 교육청 부지에는 창조마을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맡을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2015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정 2기 역점시책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 약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 또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저희 세종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도에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결성해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지난해 9월 제1호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 도담도담’이 개장되어 매일 평균 1천여 명의 방문객과 1,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에는 직매장 추가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 공공급식 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의 기획 생산과 판매를 위한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 올해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상전 의장 신년인터뷰

INTERVIEW

-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매달 수천 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그러나 인구와 도시규모에 비해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저희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고 100개 우량 기업 유치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공공시설물의 차질 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들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우리 세종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A10

Q10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증가 및 공공시설의 증가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앞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 지난해 저희 세종시의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정부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고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 법과 원칙에 따라 신설부처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치우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 지난 9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미래부, 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뒤이어서 미래부 및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당정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11

Q11

지난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아쉬웠던 점과 보람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Q12

독자 및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A12**
- 지난 한해 보람과 아쉬웠던 점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세종시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을 중심으로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매우 진취적이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 적신(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화평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장 신년인터뷰

INTERVIEW

—
세종
의정소식

SEJONG News

—
SEJONG
CITY
COUNCIL





세종의정 소식

지역, 학교, 마을공동체가 협력하는 세종형 교육복지사업 첫걸음 디터



66 교육위원회, 경기도 시흥혁신교육지구 현장 방문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는 경기도 시흥시 혁신교육지구의 행복교육 지원센터, 갯골생태공원, 장곡마을학교 '너도' 등 현장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방문지인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 방식을 알아 보고, 이후 천일염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처 갯골생태공원을 둘러 보았다. 마지막으로 '시흥 마을공동체'의 첫 성과인 장곡마을학교 '너도'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이 되어 노력해가는 과정도 살펴보았다.

박영송 위원장은 “금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지역과 학교, 나아가 마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현장 방문에 함께했던 시청 교육지원 업무 관계자와 교육청 학교혁신지원업무 관계자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2011년 지정된 시흥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 시흥시와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약으로 시작되었으며, 시흥시에서는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배움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 시흥시 특색에 맞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세종소방서
신축현장 준비상황 보고
청취 및 내부시설 점검

66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는 2015년 10월 28일 세종시 예정지역을 관할할 세종소방서 신축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10월 20일 건물을 준공한 세종소방서에서 권대윤 소방본부장 및 양기욱 공사 감리단장 등으로부터 건물 현황 및 개청 준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지상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내부시설을 확인하는 등 준비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김정봉 의원은 “비상급수용 물탱크의 규격이 작고 내부 바닥 마감이 부실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김원식 의원은 “건물 내부에 창문이 많아 겨울철 보온효과가 낮아 연료비가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외부 대피계단은 우기시 빗물이 들어오게 되고 겨울철에는 동결로 위험할 수 있으니 세심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고준일 위원장은 “세종소방서 건물은 모형을 혁신적으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시민들이 소방서를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누구나 본 건물이 세종소방서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대윤 소방본부장은 “앞으로 시설을 인수한 이후 39대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추가로 확장이 필요하고, 또한 높이 15m의 훈련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한편, 어진동 1-5생활권에 위치한 세종소방서는 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부지 5,000㎡, 연면적 4,365㎡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상반기에 개서할 예정으로 세종지역의 중심 소방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정 소식



세종시 재정 발전 모색, 상생발전 방안 등 연구발표와 토론 진행

66세종시의회 균형 발전 연구모임 제5차 회의 개최 99

세종시의회 균형 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윤희권)에서는 2015년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을 위한 제5차 연구모임을 개최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가 연구발표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비교를 통한 세종시 재정 발전 모색」과 대한국토 도시 계획 학회 기획조정단 박종광 박사가 연구발표한 「세종시 신·구 도심 상생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하였다.

연구모임 대표인 윤희권 의원은 “세종시 균형 발전 문제는 세종시의 개발, 성장과 함께, 신·구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 발표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나 회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 하자”고 언급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 발전 연구모임은 윤희권 대표를 비롯해 김원식, 김복렬, 안찬영 의원 등 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3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대중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방안 마련

66 세종시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세종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중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방청객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견을 모은다.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의원, 이하‘특위’)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5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위한 진단과 방향’(한발대 도명식 교수),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의 현황과 세종시민의 올바른 선택’(대전 시민사회연구소 금홍섭

부소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태환 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패널로 우리 시보다 1년여 먼저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청을 특별히 초청하여 추진사업 현황과 우리 시 모델에 맞는 정책제안을 하게 된다.

이태환 특위 위원장은“최근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과 빠른 도시 성장 속에서도 시민의 대중교통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버스업체 파업 위기 등으로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상황에 있다”라며 “대중교통 전문가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의정 소식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등 환경개선방안 제시



『강원 연탄공장 운영 대책 연구모임 제8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 연탄공장 운영 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2015년 11월 13일 오전 1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영송·이태환 의원, 유진성·장교진 시민대표와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해 「강원 연탄공장 운영 대책 의원 연구모임」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강원연탄공장 관련 주민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번 연구모임은 활동 결과 보고서에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강원 연탄공장 부지를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토록 제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강원 연탄공장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전 의장, 제8회 한민족대상 ‘자치의정부문 대상’수상”⁹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2015년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국신문기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시사뉴스투데이가 주관하는 ‘제8회 한민족대상’ 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임상전 의장은 “이 상은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회 전체에게 주는 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자랑스런 대한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길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민족대상은 한국신문기자연합회와 시사뉴스투데이가 공동으로 2008년 첫 회를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경영을 선도하고 국격을 높이는 호국인을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고자 시상하는 것으로써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더욱 봉사할 것





세종의정 소식



2015년 결산 및 2016년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66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제6차 회의 개최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2015년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회 3층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세종시 소관 국·과장과 LH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2015년 공공시설물 인수 결과 및 2016년도 인수 시설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윤형권 위원은 “첫 마을 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호수공원의 수질정화 약품에 대한 과다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정봉 위원은 “1-3 종촌 복검 체육관은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시설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행정도시-청주 연결도로는 도로노선이 기존 직선에서 직각 형태로 변경되는 등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찬영 위원장은 “행복청에서 시설물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이 미약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향후 복검 건립시 1-3 종촌 복검의 체육관 바닥 문제 등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등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올 한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LH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하면서 2016년 상반기 개시 예정인 세종소방서와 6월 말 개통 예정인 행정도시-청주 도로공사 현장 방문을 1월 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66

박영송 의원,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부터 감사패 받아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은 2015년 12월 11일 오후 4시 수정웨딩홀에서 열린 '2015년 자립생활 기념대회'에서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할 것

66

정준이 의원, 제8회 대한민국 사회환경봉사대상 수상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준이 의원은 2015년 12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내외 매일신문 · 내외 환경뉴스에서 주최하고 월드그린환경 연합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사회환경봉사대상' 지방자치의정부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준이 의원은 역사적인 세종시 탄생의 주역으로서 연기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재직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석발로 항거하여 세종시 원안을 지켜내는데 일조하였으며, 2014년에는 민주 세종 봉사 단장으로서 매주 금요일 세종시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밥드림 무료급식소와 공동으로 약 2시간에 걸쳐 급식과 배달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봉사와 시민사회운동을 펼치는 세종 YMCA 후원자로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해 활발히 봉사활동을 한 점이 인정되어 영예의 지방자치의정부부문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정준이 의원은 "수상하게 되어 무척이나 감사하고 한편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내년에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정 질문

제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 11. 18.)



불법옥외광고물 근절대책 세워라



행정복지위원회 **윤형권** 위원

Q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불법 옥외광고물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은 2013년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1,800여건의 행정지도만 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80만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행복청이 명품 세종시 건설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행복청은 건축 허가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하면서도 건축물이 완공된 후 불법적으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단속해서 도시미관 확보나 근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속 권한이 없는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기존 건축물에 부착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해야하고, 광고주와 간판업자에 대한 양벌조항을 두어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벼농사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

Q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준 우리의 삶이며 혼 자체로서 쌀을 빼놓고서는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벼농사는 국토환경보전, 홍수조절, 수자원 보전과 정화, 농촌경관 유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우리 쌀산업이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쌀 전면 개방과 밥쌀용 쌀 수입 발표 이후 현재 80kg당 쌀값이 15만 원대로 하락하는 반면에 영농비용은 갈수록 상승하는 등 벼농사 전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5kg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 소비촉진 운동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시의 벼농사 기반이 위축 되지 않도록 시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Question 시정 질문

Q 505 및 532 육군항공기지는 연서면 월하리, 연기면 보통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제한 구역은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조치원읍 일부 지역에 면적으로는 수백만 평에 달한다.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 그리고 건축규제 등으로 인해 부대에 인접한 마을은 수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13년 9월 27일 532기지를 폐쇄하고, 505기지는 활주로 격납고 위치 변경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간만 허비하다 중단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대가 이전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Q 현재 농작업 대행 농기계 현황은 교육훈련용 트랙터 3대와 로터 베이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 농기계 운반차량 개조, 인부임 등 4개 사업에 4억 일백이십만 원을 계상하고, 운반 장비 확보를 위해 시청 보유 2.5톤 트럭을 관리전환 추진 중이다. 따라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추진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농작업 대행서비스 대상자 현황, 면적,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 준비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으나, 로컬푸드의 근간이 될 다품목 소량 생산 기반인 고령농, 여성농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판로 지원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고 미약해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 로컬푸드의 근간이 될 다품목 소량 생산 기반인 고령농·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Q 세종시 균형 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청춘조치원과를 설치하였는데,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황과 권역별 개발계획 및 죽림·번암지구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가? 또한, 민원실 배치 인원 허가 부서 재배치 또는 별도인력 증원계획과 허가과 신설계획과 출동대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교육대를 조례 개정을 통해 119구조대로 다시 독립된 부서로 신설해야 한다.

505 및 532 육군항공기지 조속히 이전하라



산업건설위원회 김선무위원

고령농·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해야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위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행정복지위원회 **서금택** 위원

Q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관내 모든 마트와 편의점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내에서는 일부 업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업소에 대해 스티커 부착, 전통시장 이용시 세제혜택 등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내 모든 업소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무엇인가? 소액 결제가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등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혼 부부, 젊은 세대 등이 전통시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트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바닥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구입한 물건에 대한 배달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앞으로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 등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해야 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촉구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

Q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와 지방행정의 민주성 보강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2014년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였고, 우리 시도 부강면에서 실시하였다. 시범실시의 기본원칙은 생활자치 구현 및 정치적 중립 확보,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역량 강화, 공동체 회복의 선도적 기능 수행, 기존 행정기능과의 조화와 균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정치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초 창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Question 시정 질문

등곡리 충광농원의 축산 악취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집행부에 끊임없이 피력하였지만, 여전히 축산 분뇨는 조은천을 흘러 금강으로 유입되어 금강 바닥을 축산분뇨 뿔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금강물은 1일 2만 5천 톤이 유입되어 5천 톤은 정화과정을 거쳐 호수공원 및 방축천 등으로 보내지고 2만 톤은 신도시지역 하천으로 보내지고 있다. 금강물이 오염되면 호수공원과 신도시 하천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없다. 충광농원 악취관리 추진상황과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악취 저감을 위해 개별고액분리 방식에서 공동 고액분리 방식으로 가능한가? 방치되어 있는 우리 시 산성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한 복원은 물론, 산성과 산성을 잇는 탐방로 조성을 통하여 이야기가 살아있는 여가 및 역사 문화 탐방로가 필요하다.



충광농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공동 고액분리방식으로 처리해야



산업건설위원회 김정봉 위원

세종시 인구는 2012년말 11만 5천여 명에서 2015년 10월말 20만 5천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인구 중에 공교육의 수요자인 학령기 세대들의 전입이 가장 활발했다. 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상당수가 교육의 수요자인 만큼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시의 조직개편을 통한 세종시 교육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4조(보조규모)를 보면 교육 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5%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조를 근거로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는 교육지원 사업 명목으로 176억 8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범위 하한선을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위원



교육행정 질문



제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 11. 18.)

조치원읍 중학교 통합대체 신설 촉구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

Q 조치원읍에는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자중학교가 있는데, 조치원중학교는 33학급에 796명, 조치원여자중학교는 31학급에 761명이다. 긴 통학거리, 불안정한 통학로, 대중교통의 불편, 낡은 교육환경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조치원읍에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세종시 읍지역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재배치 방안 연구를 2014년 12월에 용역을 마쳤으며, 이 용역의 설문조사는 조치원읍 내의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총 2,559명으로부터 설문을 실시했다. 이 중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1,908명의 조사를 분석해보면, 통학환경의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은 5.5%, 만족은 12.4%, 보통이 44.3%, 불만이 26.5%, 매우 불만이 11.3%로 만족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통학 방법도 중학교의 경우 도보가 33.7%에 불과하고, 자가용 30.3%, 버스 16.7%, 자전거 12.8%, 민간 버스 5.4% 등을 이용하고 있어 통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흥리, 죽림리, 신안리 아파트 쪽에서 중학교를 가지면 2~3km는 가야 하기 때문이다. 조치원 중학교는 학구범위가 넓고 2개의 중학교가 경부선 동쪽으로 위치되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늘 대두되었다. 관련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원읍 중학교 신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자중학교의 통합을 통해 남녀공학 2개교를 만들고, 그중 한 학교를 국도 1호선 건너쪽에 신설 대체 이전해야 한다.

아름동과 종촌동 일대에 학교 추가 신설하라



교육위원회 안찬영 위원

Q 최근 3년 전부터 예정지역내 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시민, 학부모, 행복청이 합심하여 초·중학교 각 1개교씩 신설하였다. 3년 전 한솔동의 학교 부족 사태를 겪으며, 1생활권내 아름동과 종촌동 지역의 학교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의 증축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학교는 교내 식당과 강당, 운동장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증축한 학교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 증축은 현재의 넘쳐나는 학생 수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 증축이 아닌

Question 교육행정질문

아름동과 중촌동 일대에 학교를 추가로 신설하고, 이미 증축한 학교의 시설을 증축 시설만큼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Q 세종시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를 위해 2015년 6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연구 추진 후,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 기타 대상별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76.7%, 반대 22.6%, 무효가 0.7%로 각각 나타났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별 고교 진학 현황을 보면 세종고 입학학 257명 중 읍·면지역 학생은 174명으로 67.7%, 세종여고 입학 학생 257명 중 읍·면지역 학생은 248명으로 96.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소정면에 위치했던 33유류지원대가 부대 이전을 하여 소정면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나, 부대 이전 부지는 인근 소정역과 소정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지리적인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냥 방치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Q 고교 평준화라는 사전적 의미는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교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고교 교육을 균등화하려는 정책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찬성 76.7%, 반대 22.6%, 무표 0.7%의 결과를 가지고,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시 고교 평준화’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요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찬반 논란으로 장·단점을 운운하며,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 차이로 시민 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출범 4년 차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도시발전과 함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학교 및 교실 부족으로 과밀학급 운용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의 혼잡과 환경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교통안전에 노출되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미래의 세종시 발전을 주도할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교 상향평준화 추진배경과 목적, 반대 여론층의 대응방안과, 학력저하 및 우수인재 타 지역 유출 방지대책, 더불어 초등학교 신설 및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계획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지속적인 운영계획,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

고교 평준화가 될 경우 읍·면지역 학생의 진로대책을 마련하라



교육위원회 이경대 위원

고교 상향평준화의 추진 배경과 목적·반대여론층에 대한 방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이충열 위원

5분 자유발언



5 Minutes Speech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정봉 · 의원



세종 둘레산길 조성을 통한

행복문화도시 건설 2015.10.13.

현대는 여가와 건강의 시대로, 전국에는 시민을 위한 많은 건강 산책로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유명한 둘레길은 관광명소로 이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청주 상당산성 둘레길』 『대전 둘레산길』 12코스는 지역의 산성을 복원,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향토문화자원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의 도시로 알려진 대전은 일찍이 40여 개의 성을 발굴조사·복원하는 한편, 산성을 잇는 둘레산길 조성 사업 12개 구간, 300리, 133km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향토문화자원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신도시 지역에는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행복 도시 둘레길 조성 사업이 2020년까지 총 199.7km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문화길 16개 코스 중 원수산, 전월산, 금강변 등을 둘러볼 수 있는 7개 코스 71.9km가 이미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신도시 둘레길 조성은 행복청에서 정책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에는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서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 총 7억 원을 들여 금남면 부용리 '피꼬리봉 산책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쌓은 산성이 3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동면 6개, 장군면 4개, 전의면 3개, 연기면·연서면·금남면 각 2개, 연동면·소정면·조치원읍·나성동 각 1개 그리고 부강면에 10개입니다. 시에서는 이들 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과 보수·정비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한 향토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 관광 자원 육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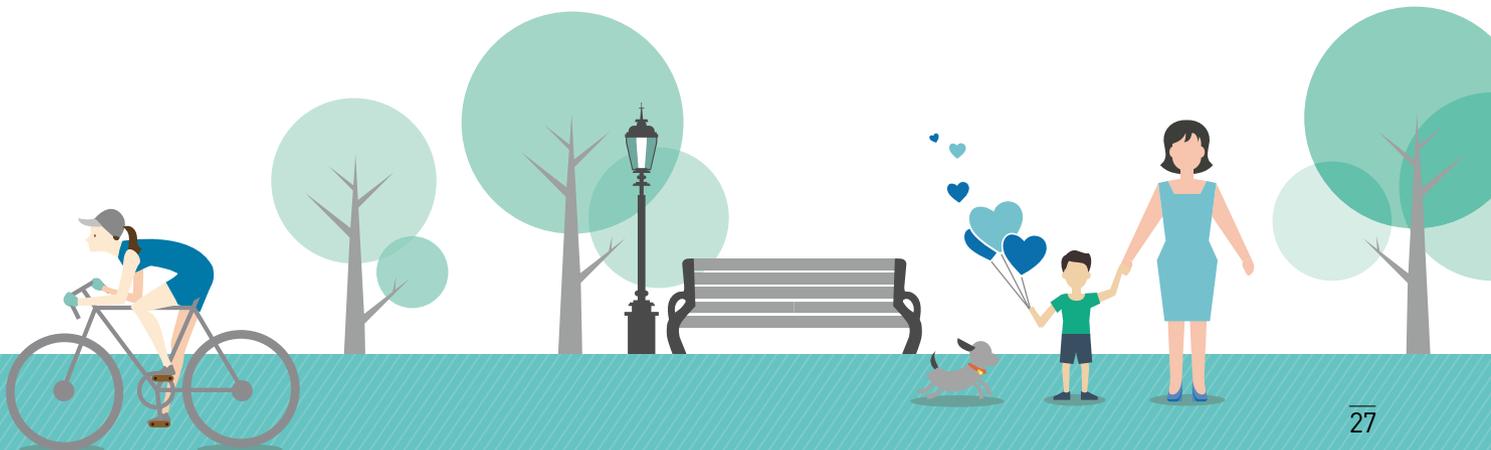
첫째 산성의 체계적인 복원과 더불어, 산성과 산성을 잇는 『세종 둘레산길』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성 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세종 둘레산길』 조성도 같이 연구되고 검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강면의 경우 10개의 산성유적이 있어 작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산성이 있다는 것은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가 드물다 합니다. 남성골 목책산성은 고구려 최남단

산성으로 5세기 후반 고구려 유물이 대거 발굴 되었으며, 특히 독안산성은 고구려 장군 연개소문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 등 고구려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산성과 산성을 잇는 문화 탐방 산책로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읍면지역 산성은 물론 기타 향토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세종 구현과 읍면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또한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서 느끼며,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 지역의 조상들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살아갈 이야기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아쉬운 우리 시에 세종 둘레산길 조성은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안다는 『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건강, 문화, 조화로운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더 잊혀지고 묻혀지기 전에 세종시가 21세기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원 유지 계승,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서금택 · 의원



청년 일자리 해소 대책

2015.10.21.

최근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및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용어가 등장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1만 명의 비정규직과 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 등 청년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우리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세종시는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직업훈련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 일자리 공시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경비직 고령근로자 우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2백만 원으로 일반적인 직업교육과 국비 매칭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만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분석부터 이미지 메이킹, 면접준비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6주간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월 30만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전문 교육이 필요한 자는 3개월간 월 40만 원의 교육수당과 인턴 근무 기업에게는 3개월간 월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하고, 1호 기부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TF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직업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 청년 일자리 개발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세종시를 포함한 취업·창업 지원 관련기관, 기업체와 대학·고교 등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세종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해서, 세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구직자 지원, 특히,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지원 및 비정규직 청년취업 기회확대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 나는 풍요롭고 희망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건설을 위해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JOB



주요 안건처리 현황

Main Agenda

제33회 임시회

제34회 제2차 정례회

SEJONG
CITY
COUNCIL

“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다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 33 회 임시 회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3회 임시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7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처리 안 건

0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하여 교통관련 봉사단체 등에 사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등”으로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0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발 의 자| 윤형권 외 3명

|주요내용|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03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변경매입)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문화 관광형 시장인 세종전통 시장은 규모 면에서 나 상권 활성화 면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서 도시인구의 팽창에 따라 전통시장의 이용객은 점점 증가하여, 고객 눈높이에 맞는 공연장 및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당초 결정한 사업부지는 공시지가가 높아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매입이 어렵고, 아케이드 안에 위치하여 주차장으로 의 기능이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아 대체 부지 검토 추진

* 확보 사업비: 19.89억원 (* 중기청 신청: 36억원)
아울러, 변경하려는 부지는 접근성이 좋아 승용차와 승합차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중화장실과 인접하여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할 시 운집한 고객들이 불편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임. 또한, 당초 부지에 비해 공시지가도 높지 않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04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변경계획)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세종시의 열악한 생활체육 시설 개선·확충을 통하여 건강한 여가 체육공간 조성 및 주민 건강 증진·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유재산(폐천부지)을 매입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0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06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사업, 평생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지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0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현
동의안(원안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교육 지원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그 밖의 처리 안건

조례안 22건

– **시장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 **교육감제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 **의원발의(8건) |**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윤형권외 3명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선무외 4명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정준이외 8명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업외 5명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장승업외 6명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준일외 3명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외 4명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복렬외 3명 의원)

기타안건 8건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산업 출현 동의안 외 7건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34회 제2차 정례회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기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및 교육 재정 계획을 청취하였고,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2015년도 세종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처리 안건

01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02

2015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03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교육감

|주요내용|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2016년도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이전 수입 및 자체수입 등의 세입재원으로 학교 신설과 읍·면지역 교육환경 격차 해소 등 주요 시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음.

04

2015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의결)

|제 출 자| 세종시교육감

|주요내용| 201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 수입 등의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진행 완료된 사업의 불용 예정액 등 세출재원을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하기 위함

05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8.5%)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수질 기준 강화 및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확대되었으며, 2006년 사용량 단계 조정 후 동결된 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정책심 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상률을 반영한 하수도 요금의 적정 인상으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및 안정적인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06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 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 장을 관리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0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수정가결)

제 출 자 세종시장

주요내용 정부의 지방 규제 종합 정비 사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상 자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의 우선 신청 대상자에 추가하는 하는 한편, 계약이 해지된 경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08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수정가결)

발 의 자 정준이 의원 외 7명

주요내용 「환경교육진흥법」 및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환경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09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발 의 자 이경대 의원 외 4명

주요내용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 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보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 고자 함

1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발 의 자 김선무 의원 외 4명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함.

그 밖의 처리 안건

조례안 16건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 **교육감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 **위원회 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원발의(3건)**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외 4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7명)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외 7명)

기타안건 18건

- 세종특별자치시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준이 의원)
- 2020 세종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견 청취안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 재위탁 동의안
-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 치매통합 관리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 노상 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한센병 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
-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 계획안
-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Standing Committee
Special Committee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SEJONG
CITY
COUNCIL

66

의회운영 위원회

9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서금택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



김원식 위원



김정봉 위원



장승엽 위원



정준이 위원

01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 등 총 3건을 심의하여 2건은 원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다.

02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같은 날 타시도 선진 지역 문화축제에 대한 운영현황 및 콘텐츠 구성 등을 조사하고 우리 시 ‘세종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를 현장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03 **제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8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회의 단축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12월 7일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 및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여 각각 원안·수정 의결하였으며, 12월 16일 3차 회의를 개회하여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

04 **제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타시도의 「지역공동체 성공사례」의 비교견학을 위해 충북 괴산군 일원 ‘산막이 옛길’과 ‘한지 박물관’ 등을 현장 방문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

①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그중 7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② **제3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실시하였다. 11월 23일은 「세종특별 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6건 총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하였다.

③ **제3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어려운 아동 해외탐방비 등 8건에 75백만 원을 증액하고,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비 등 50건에 3,361백만 원을 감액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2월 4일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원안결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열 위원



박영승 위원



서금택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66

산업건설위원회

99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고준일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안찬영 위원



이경대 위원



이태환 위원

01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5일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가축위생 연구소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 진흥 조례안」등 1건은 수정가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등 1건은 보류 하였다. 10월16일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여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통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금번 제33회 임시회에서 산업 건설위원회는 세종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회 출장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다소 해소하고자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02 제33회 임시회 폐회 중인 10월 28일에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소방서를 방문하여 개청 준비상황 보고 · 청취, 건물 내부를 점검하였다.



03 제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9일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1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 청취」를 하였으며, 11월 23일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건은 수정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보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내용 변경 동의안」등 1건은 부결하였다. 11월 30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등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어서 12월 3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까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12월 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의결을 하여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수정가결을 하였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자금운용계획안」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수정가결을 하였다.

교육위원회

①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 학구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하였다.

② **교육현장(시흥 교육혁신교육지구) 현장방문**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 학교 · 학부모 · 지역사회의 협력적 교육 네트워크 등 벤치 마킹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세종형 교육복지사업 추진 방안 강구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시흥혁신교육지구의 행복 교육지원센터와 장곡마을학교 ‘너도’ 를 현장 방문하였다.

③ **제3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계획안 1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4건, 부결 1건을 의결하였다.

④ **제34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7일부터 8일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12월 9일은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교육위원회 위원



박영송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안찬영 위원



윤형권 위원



이경대 위원



이충열 위원

6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태환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



고준일 위원



이경대 위원



윤형권 위원



정준이 위원

01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 회의에 회부하였다.

02 제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시 본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 회의에 회부하였다. 한편, 2016년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규모는 1조 1,17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000억 원, 특별회계는 3,172억 원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5,068억 원으로 나타났다.





66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99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01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4일 제4차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단한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이관 현황을 청취한 후 그간 현장활동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그에 대하여 중점 토론을 실시하였다.

02 **제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 제5차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첫눈이 오는 가운데 굶은 날씨에도 도시통합정보센터, 도담동 제2 자동집하시설, 오가냥뜰 공원 등 3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실제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03 **제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12월 21일 제6차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결과 및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에 대하여 청취한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안찬영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김정봉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엽 위원

66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99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이태환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이경대 위원



고준일 위원



장승업 위원



서금택 위원

01 제3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인 8월 17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이태환·김원식 의원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을 채택하였고, 집행부로부터 대중교통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02 제32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9월 24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경영 평가 운송원가 산정 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결과를 청취하였다.



03 제33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11월 12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100여 명의 시의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을 초청해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04 제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6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 의 건」을 심의하여 당초 2015년도 12월 30일에서 2016년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토록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다.



SEJONG NEWS PAPER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2015.10.07. (수) 지역 12면

총청투데이



이충열 위원장이 은하수 공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시설 현장점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5~6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관내 복지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종촌종합복지센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은하수공원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성폭력상담소 등의 시설을 갖춘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해 5개 시설이 유기적으로 원활한 협조를 통해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배분을 해주길 요구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2015.10.15. (목) 지역 05면

중도일보

세종시의회 찾아가는 상임위 눈길

산건위 15~16일 신청사서 공무원출장 등 비효율 해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의 '찾아가는 상임위원회 개최'가 제33회 임시회 기간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조치원읍 시의회와 보람동 시정간 물리적 거리차왕복 이동 50분로 인한 '공무원 대거 이동' 등 업무 비효율을 제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5~16일 보람동 본청 대회의실에서 상임위를 개최한다. 지난 6월 말 신청사 이전 완료 후 상임위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준일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 후 일선부터 간부급 공무원까지 의회 출장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집행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보탬을 주고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빈번한 서울 국회 출장 비효율 해소 흐름속, 지방의회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출선수범 자체로 세종에 내려오면, 현재 대한민

국 공직사회 비효율과 출장 빈도가 최대 90% 이상 줄어든 수 있다는 분석도 참고했다.

15일에는 지난 1일 개소한 가족위생연구소로부터 AI 발생 대비 등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김선무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안'과 '세종시 비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모두 5건을 처리한다.

이어 16일에는 이태환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준일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모두 8건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이 같은 시도는 최근 집행부와 붙어진 '기싸움' 양상을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또 다른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최근 기싸움과 갈등은 상호간 조금만 배려하고 소통하면,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며 "산건위의 '소통' 노력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지방의회의 찾아가는 상임위 개최가 정부세종청사 비효율 해소의 핵심 대안으로 손꼽히는 국회 분위를 설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SEJONG NEWS PAPER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2015.10.26. (월) 지역 04면

충남일보

세종시의회, 청소년 직업현장체험 실시

민주시민 자질 함양·리더십 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체질

세종시의회는 최근 화의실에서 세종시 조차민 중학교 2학년 학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리더십을 훈련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직업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행사는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위상철 의원의 환영과 대담에 이어 변호사 등 내무직사실을 견학했다.

▲2부에서는 변호회 개회 겸 시자로 국민의례, 이종훈 의원영선위원회 '꿈의 job' 박상, 의장·의원·사무직원 소개, 원본직업현장의 방문,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위상철 의원은 학생들과의 만남자리에서 "세종시 미래의 주역인 조차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세종시의회와 당분간 진심으로 환영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 정치가와 직업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느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원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권오주 기자 kjo1133@naver.com



세종시의회는 최근 화의실에서 세종시 조차민중학교 2학년 학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리더십을 훈련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직업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2015.11.13. (금) 종합 11면

세종매일

세종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대담대중교통 운영개선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세종시 대중교통 운영개선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중교통 정책 제시 미래 지역 내용 많아 참가자 "현실적인 문제 논의에 아쉬움 남겼다"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5층 대강당에서 세종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정책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됐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야 할 부분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의 사회로 발제자 도명식 한남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위한 집단과 분할'과 '금융업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대중교통정책의 현황과 세종시민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앞서 대중교통에 대한 현황제시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현기 세종시 교통과장, 구종필 세종시교육청 학교설립 담당, 송준상 전주지방 대중교통과장,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각 분야에 맞는 개선책과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명식 교수는 '대전시의 유한한 인구수준을 보았을 때

시각이 세종시의 대중교통에 나날이 발전은 유한한 인구수준 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 환경이 보존 되는 도시, 산진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등을 갖춘 수 있는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강조했다.

도 교수는 또 미국과 에스토니아의 도시 발전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소개하며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대중교통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환승역 신설 등 전국 국제공항-광역교통 접근성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금융업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세종시의 인근 도시인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설명하면서 대전시의 준공영제는 밑바닥부터 잘못가라는 표현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심화 요인을 다양하게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또 세종시 인구 증가에 반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정시성,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심부별 중심으로 각종 불법주정차 문제로 민생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번째 토론회로 나선 김현기 세종시 교통과장은 세종시도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설계됨에 따라 도시가 완성되는

시기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과장은 또 이러한 어려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앞서 발제자 금융업 부소장이 지적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확보와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구종필 세종시교육청 학교설립 담당은 학교와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구 담당관은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별 행동요령, 조차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위기상황 대응 등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면 지역 영거리 통학생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 담당관은 어린이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점검, 대중교통 중 일부별 학교마을 버스도 도입해 학생 등·하교 지원, 세종시 시장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배스리 지원 및 통학버스 지원 등 필요성을 밝혔다.

▶ 2년 기사 계속 / 박승민 기자

2015.11.29 (일) 대전/충남

忠淸日報

공공시설을 인수점검 특별 위주서설 현장점검 도시통합정보센터 별과 모의실험, 오가남동 공원 주차장



▲성황대기를 제2차동집합시설의 약취거감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세종=충청일보 김경배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시설을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현철) 소속 위원들은 27일 △도시통합정보센터 △성황대기를 제2차동집합시설 △오가남동 공원 등 3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청아를 지역에서부터 낚지 사건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도담동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제2차동집합시설 방문해 일반 로 오피스텔쓰레기 투기부담, 처리과정과 상해보고 관련 이거로 주민들의 약취거감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 중인 약취거감 시설의 점검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차 특위 활동에서 견학한 오가남동 공원은 연적이 넓은 근린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이 부화한 주차장에 대해 내 궁극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한 결과, BRT도로에서 정안C로 가는 초입 교량을 지나 반대편 도로로 차량을 유입하는 등 차량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최대 15분의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 개선을 위해 도로공공편, 세종경찰서 등과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안현철 위원장은 "지난 도시통합센터 방문시 근무자들의 업무숙련도가 미흡했으나, 현재는 숙련도가 향상됐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제2차동집합시설에서는 "발반쓰레기의 함몰율이 높아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해, 폐취거감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5.12.16. (수) 대전/충남

굿모닝충청

세종시의회, 사·교육청 내년 예산안 처리...16일 정례회 때
신상두 기자 sdshin@goodmorningccc.com



▲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천)가 16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교육청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천)가 16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교육청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에 대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1조 1173억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5,069억원 규모의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종합심사와 축소심사 개수조정 등의 과정을 심도있게 진행했다.

주요 처리 안건은 총 44건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회안과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등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서군역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강연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운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이경대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시험하고 재경보에 관한 조례안 ▲이충윤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오염 진원 조례안 ▲김성우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자란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2015.12.17. (목) 인물 21면

大田日報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의 토론 장면.

사진=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 제공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 이목집중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윤형권)이 을 향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연구모임은 총 6차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발표를 진행하면서 세종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시 주요업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생해법을

청 유지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역사성과 고유성을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제발표에 나선 박종광 박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의 균형 발전 추진 부서의 일일화를 주장했다. 박 박사는 "시 주요업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생해법을

취유이 있다"면서 "의회차원의 연구모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의원들이 직접 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할 의지다. 연구모임이 최근 진행된 5차 활동도 주목했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비교를 통한 세종시 재정발전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코레일 관광연계 신·구도심 상생 제시
관련부서 일원화 등 다양한 해법 논의**

찾기 위한 활동을 펼친 것. 최근에도 '세종시 신·구도심 상생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형권 대표의원은 "코레일 관광과 연계 해 드라마영화 세트장과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전념하는 조직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조치원 역사 복원, 조치원고, 조치원여고 등 일대역

조치원과는 대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촌조치원파에 투자유치 전담 담당을 신설, 구도심에 국제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전념하는 조직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읍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와 흥덕대 세종캠퍼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연구 및 인력 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정연 의원은 을 향해 연구모임에 대해 "행정방문을 더 뜻만

이 자리에서 윤형권의 의원은 "세종시 균형발전 문제는 세종시의 개발, 성장과 함께, 신·구도심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과제가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타지역 벤치마킹에 도 적극 나섰다. 지난 8월에는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전천·음성)를 방문해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공공기관 이전 및 이주인 정착현황 등을 살펴봤다.

윤형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근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의 장·단점과 신도시 개발을 통한 구도심 상생 발전방안 등을 벤치마킹해 세종시의 균형발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석 기자

2015.12.23 (수) 종합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3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최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지난 8월 26일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전천·음성)를 방문한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윤형권) 회원들이 본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① 사진=세종시의회(충북일보 제공) ②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자"란 취지로 구성된 세종시의회 소속 3개 연구모임이 올해 활동을 마감하며 최근 각각 활동결과 보고서'를 냈다.

해당 모임은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윤형권 의원) △강원연탄광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군역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운이 의원)이다.

의원 4명 외에 시청 공무원 인원이 등 회원이 모두 8명인 균형발전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최대 현안인 신·구 시가지 간 균형 발전 방안을 집중 연구 및 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이 모임은 지난 8월 26 일에는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전천·음성)를 방문,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공공기관 이전 및 이주인 정착 현황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강원연탄광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지역 최대 민원 중 하나인 강원연탄광장의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연탄광장 소재지 지역구 출신인 서군역 의원은 "세종시의 관공인 조치원역 바로 인근에 하루 4만장 생산 설비를 갖춘 연탄광장이 있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조치원 발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연탄광장 민원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정운이 의원은 "그동안 광공면의 환경이 각종 개발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모임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시 가볼 만한 곳

Travel Tip



베어트리파크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송로 217
 ☎ 044. 866. 7766
 🌐 www.beartreepark.com



10만여 평 대지에 1,000여 종에 이르는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베어트리파크는 나무와 곰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베어트리파크의 상징인 150여 마리의 반달곰이 재롱을 부리는 반달곰동산과 공작, 꽃사슴등이 반기는 애완동물원,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꽃과 나무, 희귀식물 등 다양한 테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으로 가족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금강자연휴양림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도남리12-2)
 ☎ 041. 635. 7400
 🌐 www.keumkang.go.kr



금강자연휴양림은 백제의 역사와 숲 체험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휴가지로 좋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숲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초록이 가득하다. 금강자연휴양림의 랜드마크인 열대온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열대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야영장을 개방하여 쾌적한 캠핑이 가능하다.





고북자연공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북리, 용암리
 ☎ 044. 300. 3444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과)
 🌐 www.sejong.go.kr

연화사를 나와서 연서면 고북리로 가면 1.949km² (고북리 1,949m², 용암리 805.864m²)의 넓은 면적을 가진 고북 저수지를 만나게 된다. 또한 저수지 한편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화여대 미술대 강태성 교수가 조성한 야외조각공원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뒤옹박고을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배일길 90-43
 ☎ 1588-0093 / 박물관 044-868-7007
 🌐 www.dweeungbark.co.kr



마을 입구에서 조금 오르면 장으로 가득 찬 천여 개의 장독 모습이 장관이다. 세종시 운주산 자락에 위치한 뒤옹박고을은 전통 장류와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지역민들이 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전통 장류테마공원이다. 뒤옹박 고을은 전통 장류 문화를 조사·연구·보존·전시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사회교육의 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올바른 지역문화와 전통장류와 관련된 우리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박물관도 있다. 박물관은 2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장담그는 과정, 장의 재료, 전통 장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관련 고서와 여러 종류의 콩종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옹기들이 '된장', '간장', '집장', '고추장', '부엌살림' 이라는 소주제로 그 쓰임새에 따라 전시되어 있고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연간회의 총 6회 130일

(정례회 2회 70일, 임시회 4회 60일, 예비 10일)

2012~2015년도 회기운영 현황

2012		
계	정례회	임시회
5/60	1/26	4/34
2013		
계	정례회	임시회
9/119	2/52	7/67
2014		
계	정례회	임시회
11/110	2/51	9/59
2015		
계	정례회	임시회
9/130	2/62	7/68

2016년도 주요일정 및 행사

- 설 연휴 : 2.6.~2.10. <5일간>
- 결산검사 : 4.14.~5.3. <20일간>
- 국회의원 선거 : 4.13.
- 을지연습 : 8.22~8.26.
- 추석연휴 : 9.14~9.18. <5일간>
- 제97회 전국체전 :
아산시 - 10.7~10.13. <7일간>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11.10.
- 시의회 청사 준공 및 이전시기 : 10월중

회 기	회의일수	회의일수				주요 처리안건
		계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130	22	92	16	
제35회 임시회	2.15.(월) ~ 2.24.(수)	10일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6회 임시회	3.16.(수) ~ 3.30.(수)	15일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 교육행정 질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7회 임시회	5.12.(목) ~ 5.31.(화)	20일	2	1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8회 제 1 차 정례회	6.15.(수) ~ 7.20.(수)	36일	7	2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14일)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선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9회 임시회	9.21.(수) ~ 10.05.(수)	15일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40회 제 2 차 정례회	11.11. (금) ~ 12.14. (수)	34일	5	2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 교육행정질문 • 2017 본예산, 2016 마무리 추경예산안 •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소식지인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이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 300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담당자 이종곤)
- 전 화 | 044. 300. 7242 • 팩 스 | 044. 864. 0589 • 이 메 일 | hhh1616@korea.kr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발 행 일 2016년 통권 제10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전 화 044-300-7242
 홈페이지 www.councilsejong.go.kr

세중의회
소식지

2016 | 통권 제10호 |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http://council.sejong.go.kr>